

#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소설적 변용과 의미화 전략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주 지 영\*

## 차 례

1. 머리말
2.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변용 양상
  - 1) 전설의 텍스트성 강화
  - 2) 신화의 구술성 강화
3.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의미화 전략
  - 1) 선악의 윤리적 양항 대립에 의한 경계 짓기: 전설의 경우
  - 2) 공동운명체의 일체감에 의한 경계 허물기: 신화의 경우
4. 맺음말

## 1. 머리말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sup>1)</sup>은 ‘신화’와 ‘전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 군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1) 이 글에서는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2, 열림원, 2003년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기존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 「제주도로 간 『당신들의 천국』이청준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 『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11, 263-298면.

서 그 이전의 작품들과 확연히 달라진 면모를 보인다. 이청준이 유고로 남긴 『신화의 시대』를 제외하고 작가의 작품 중에서 신화에 주목한 작품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줄』, 『매잡이』 등과 같은 초기 작품에서 이청준은 사라져가는 옛풍속과 관련된 줄광대 이야기, 매잡이 이야기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신화’로 표상되는 세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화를 삼킨 섬』과 구별된다. 한편 『이어도』에서는 제주 이어도와 관련된 전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에서는 이어도 전설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작품의 의미망 형성과 관련해 핵심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신화와 전설을 비롯한 각종 설화가 작품 서사 전개과정에서, 또 주제형성 과정에서 중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청준은 왜 『신화를 삼킨 섬』에서 ‘신화’에 주목하였는가,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그가 그려내고자 한 세계는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은 『신화를 삼킨 섬』을 논할 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에 접근하고자 할 때 주목할 것은 작품 제목과 관련된 ‘신화를 삼킨 섬’이라는 구절이다. 먼저, ‘신화’와 관련된 측면이다. 작가는 이 작품과 관련한 어느 대담<sup>2)</sup>에서, “역사의 차원, 과거 경험의 차원에서만 소설을 써서는 안 되겠다. 더 깊은 근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

이주미,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신화의 소설적 전유 방식』, 『한민족문화연구』 59, 한민족문화학회, 2017.9, 45-70면.

정과리,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탐돌이도 넘어」,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정홍섭,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황석영의 『손님』과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71, 실천문학사, 2003. 8, 312-332면.

주지영,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틀서사와 환유」, 『비평문학』 43, 한국비평문학회, 2012.3. 383-417면.

차혜영, 「냉소적 이성과 권력의 거리, 이청준 후기 소설연구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9.8, 293-320면.

2) 『대한매일』, 2003.8.8.

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신화의 세계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무속이죠. 그 무속 혹은 신화에 우리들이 이어온 녀의 요소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의 발언을 정리하면, 과거 경험에 입각한 소설을 지금까지 주로 썼는데, 이 작품에서는 무속 신화를 통해 ‘우리들이 이어온 녀의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어온 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어떤 심성”, 즉 한민족의 집단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곧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경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한민족의 집단무의식에 접근함으로써 현실의 경험세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작품은 전설을 다루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작품의 처음과 끝에 설정하고, 그 사이에 과거 경험과 관련된 중심 서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심 서사 속에 서사무가로 대표되는 다양한 신화<sup>3)</sup>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어떤 설화가 어떻게 차용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설화가 어떻게 서사구조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실의 경험세계의 어떤 문제를 비판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삼킨 섬’의 측면이다. 여기서 ‘섬’은 제주도를 의미하며 ‘삼킨’은 제주 섬사람들이 제주 신화를 삼키고 그것과 일체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설에 해당되는 아기장수 설화 가운데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신화에 해당되는 여러 제주 서사무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아기장수 설화와 여러 서사민요에 담긴 세계에 대해 제주 섬사람

3) 무속신화, 혹은 무조신화란 무당의 조상이나 시조로 여겨지는 신의 신화를 말한다. 주로 그 이야기는 ‘본풀이’를 통해 전달된다. 김현선, 『한국무조신화연구』, 민속원, 2015 참조. 현재의 본풀이가 고대신화의 변모잔존형태라는 것은 한국신화와 제의의 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참조.

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제주 섬사람들로 대표되는 한민족의 집단무의식으로서의 ‘녘’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 ‘녘’을 통해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전설과 신화에 내재한 제주 섬사람들의 ‘녘’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의 핵심 주제에 접근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해 이 글은 『신화를 삼킨 섬』이 신화와 전설이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소설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의미화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변용 양상

### 1) 전설의 텍스트성 강화

『신화를 삼킨 섬』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 설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중심 서사가 전개되는데, 이는 ‘1~18’까지의 번호를 달고 제시되고 있다. 중심 서사는 삼인칭 다중 초점화자<sup>4)</sup>의 시선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각각 정요선, 고종민, 추만우가 초점화자로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나간다. 정요선은 어머니인 유정남 심방과 함께 물에서 건너온 무가(巫家)의 인물이고, 고종민은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온 재일교포로 민속학을 연구하는 인물이다. 추만우는 제주 추심방의 아들로 변심방의 딸인 금옥의 신내림굿을 치러주면서

4) 초점화자는 초점화(focalization)의 주체로서 누가 보는가와 관련된 시점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Gerard Gene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212면.

무업의 길을 이어받는 인물이다.

1~18까지의 서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신군부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큰당집이 주관하는 ‘역사 씻기기’ 사업 차 물에서 제주로 건너온 정요선 일행은 제주에서 굿일감을 찾는다. 4.3사건의 희생자 목록에서 굿거리 일감을 찾지만 청죽회와 한얼회의 편 가르기에 지친 제주 사람들은 누구도 굿을 하려 들지 않는다. 작은당집 사람인 이과장의 주선으로 유정남은 한라산에서 발견된 혼백의 굿을 치르기로 하고, 위령제의 마지막 행사로 굿판을 벌이기로 한다. 한라산 유골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가 벌어지고, 육지에서는 지팡이 사내의 횃불 남행 행렬이 K시에 가까워지면서 정세가 험악해진다. 위령제에서 유골함 탈취극이 벌어지고 육지에서는 남행 행렬이 K시에 도달한 것을 계기로 계엄령이 내려진다. 신기를 못 이기는 금옥은 추심방네를 통해 신내림굿을 치르고, 유정남은 위령제 굿판을 끝내고 요선의 아버지가 묻힌 소록도 만령당으로 향한다.

이 작품은 이상의 서사에 김통정과 김방경과 관련된 고려 때 삼별초의 사건과 해방 직후의 4.3사건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삽입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전설에 해당하는 ‘아기장수 설화’와 신화에 해당하는 여러 서사무가가 등장한다. 이 작품에 제시되는 전설과 신화 콘텐츠가 어떤 형태로 작품에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설에 해당하는 아기장수 설화이다. 이 작품에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아기장수 설화와 함께 중심 서사 내에 김통정과 김방경과 관련된 아기장수 설화가 등장한다. 전자는 한국에서 전승되는 보편적인 아기장수 설화에 해당하고, 후자는 제주도에서만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와 그 변형태에 해당하는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가 대비되면서 두 전설의 ‘동일성’과 ‘차이’가 강조된다. 더불어 서로 다른 변형태가 왜 생겨나는가를 궁금하게 여기도

록 유도한다. 이 작품에 제시된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의 내용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	(나) 중심 서사에 삽입된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
①	옛날 왕조 시절 어느 마을에	고려조 때의 일이다.
②	한 가난하고 나이 먹은 부부가	이 나라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③	늦게까지 아이를 얻지 못해 고심하다, 마을 뒷산의 용마바위에 오랜 치성을 드린 끝에	과수택은 지렁이가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찾아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간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럴수록 그 지렁이가 징그럽고 끔찍스러워 그만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다.
④	마침내 소원하던 옥동자를 낳았다.	마침내는 외모부터가 비범하기 그지없는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
⑤	그런데 아기가 놀랍게도 두 어깻죽지 밑에 접힌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의 온몸에 번쩍번쩍 비늘이 덮여 있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선 조그만 날개들이 돌아나고 있었다.
⑥	말 울음소리가 세 번 울면서 두 쪽으로 크게 갈라진 그 용마바위 틈새에 세 자루의 곡식 부대와 함께 정신없이 아기를 숨겨 묻고 돌아왔다.	과수택은 몹시 겁이 났지만,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일체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정성껏 아이를 길렀다.
⑦	관가의 군졸들이 아비를 앞세워 찾아간 바위는 다시 옛날처럼 틈새가 단혀 있어 아이의 무덤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통정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관군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군졸들과 이 제주도로 건너왔다.
⑧	하지만 줄지에 바위가 갈라지고 세찬 햇빛과 바깥바람이 덮쳐들자 장졸들은 일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힘없이 스러져 갔고, 장수의 모습을 하고 끌어안은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듯한 큰 한숨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였다.	어느 해에 김방경 장군이 거느린 고려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갔다. 김방경은 칼을 빼어 그 틈새로 김통정의 목을 찔러 베어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땅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김통정의 머리가 다시 몸으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젓가루를 뿌려 두었다.

⑨	슬픈 말울음 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갈라진 용마 바위 뒤편에서 눈부신 날개를 단 용마 한 마리가 불쑥 솟구쳐 올라 뒷산 너머 하늘로 멀리 사라져갔다.	김방경 장군은 김통정의 아내를 붙잡아다 뱃속에 든 아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이를 함께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⑩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이 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도표에서 ①~⑩의 분류 단위는 다음에 기준을 두고 있다. ①은 언제, ②는 누가, ③은 어떤 일로, ④는 옥동자를 낳았다, ⑤는 아이는 날개를 달고 있다, ⑥은 아이를 숨겨 묻는다/아이는 비범하게 자란다, ⑦은 관군이 아이를 잡으러 온다, ⑧은 장수가 되지 못하고 아이는 죽는다/도술을 발휘하지만 관군에 의해 죽는다, ⑨는 용마가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사라진다/장수의 자식과 아내가 모두 죽는다, ⑩은 사람들은 아기 장수와 용마를 다시 기다린다는 해당한다.

(가)는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제주에 전하는 아기장수 설화로서, 고려 때 삼별초라는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나)에서는 (가)의 인물의 특징과 줄거리를 변형시킨다. 가령 김통정이 아기장수의 자리에 놓인다. 그리고 날개가 달린 비범한 출생④, ⑤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기장수(김통정)는 (가)의 아기장수처럼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며 장수로 커 간다.

(가)의 결말과 (나)의 결말은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관군에 의해 장수는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좀 다르다. (가)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바위에 묻어주지만, (나)의 경우에는 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고 아이를 비범하게 길러낸다. 여기서 보

듯, 두 설화의 가장 큰 차이는 비범하게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죽이기로 마음먹느냐, 아니면 비범한 아이로 키우느냐이다. (가)는 후환을 두려워한 부모 때문에 용마바위 속에서 아이가 몰래 장수로 커가지만 (나)는 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장수가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아기장수 설화를 보여주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에 와서 변개된 아기장수 설화를 대비시켜 그 의미의 차이를 강조한다.

## 2) 신화의 구술성 강화

다음으로, 신화에 해당하는 제주도의 ‘서사무가’를 보자. 제주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서사 내에서 네 번에 걸쳐 굿판이 벌어지는데, 이때 무가들은 굿 제차의 일부분으로 소개된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신화는 ‘해정리 변삼방 뱀당신(堂神)’이다.

그리고 당신 중에도 금옥이넌 어찌 하필 구렁이 귀신을 모시게 됐느냐  
는 요선의 궁금중에 그녀는 다시 길게 한숨을 짓고 나서 대충 이런 이야기  
기를 털어냈다.

-옛날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귀하게 태어난 상제님의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중략) 그 바람에 분이 난 위인의 고자질에 용  
왕이 그를 다시 흉측스런 뱀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원령이 된 그 사신은 다른 당신이 없는 이 해정리로 우리  
할머니를 찾아 들어와 이 동네 당신으로 좌정을 하게 된 거래여. 그러니  
그 원망 많은 당신을 모신 심방 내림으로 무슨 대단한 길흉화복을 상  
관할 수나 있었겠어. 마을 사람들 앞에 겨우 제 신세타령 원망이나 늘어  
놓은 ‘본풀이’ 곳으로 겨우겨우 동네 당신노릇이나 해가는 거지. 하긴 이  
것도 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본풀이 당곳 사설 가운데에서 주워들은 것



이지만, 그러니 그 징그런 뱀 귀신이 온 나쁘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어째 하필 우리 할머니에게 들려들었는지 원!”<sup>5)</sup>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신화는 금옥이 요선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모시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당신의 내력담<sup>6)</sup>은 무가의 본풀이 당굿 사설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 금옥의 발화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신화는 굿판의 형식을 빌지 않고 금옥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거리의 형태로 소개된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신화는 예송리 본향당신 ‘초감제 본풀이’<sup>7)</sup>로, 굿판에서 무녀의 사설에 의해 읊어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둥더더 둥둥 둥두더 덩…… 예예,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라 만나락 하고, 사람은 본을 풀면 백 년 원수를 지는 법이라, (….) 그 백주또 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종이 하루는 천기를 살피시니, 이 봐라 당신의 천생배필 되실 분이 조선국 이 제주 섬 예송 마을에 살고 있는지라, 그길로 훨훨 제주 섬을 찾아가 소천국 님을 만나서 천생배필 부부의 연을 이루셨더라. 둥더더 둥둥 둥두더……

굵고 탁탁한 목청으로 당신의 탄생과 좌정의 내력을 읊어가는 심방의 제주말 사설은 요선으로선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첫 대목부터 굿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자못 숙연하면서도 흥겨운 분

5)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2003, 123면.

6) 무속신화는 완전한 설화의 구조를 갖춘 신의 이야기를 일컫는다. 무속신화는 일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 곧 신격이 있을 것, 그 신격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건의 서술일 것, 그 이야기가 무속의례에서 무격에 의하여 노래로 불리거나 이야기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본풀이’라고 부른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7) 신화 속에는 반드시 창세의 원리 및 수많은 의식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주도의 굿에서 읊어지는 신화 속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초감제라는 의식에서 읊어지는 제의언어 속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겨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해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이수자, 위의 글, 2면.

위기로 이끌어갔다.<sup>8)</sup>

이 서사무가는 굿판에서 심방의 사설로 전해진다. 서사무가의 사설은 앞서 ‘아기장수 설화’와는 달리 구어체의 표현을 그대로 담아낸다. 또한 작품에서는 심방의 사설에 이어 굿판에 청중의 반응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굿판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끈다.

(i) 사설이 계속되어나갈수록 요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일정한 틀이 없이 여기저기 자기 객담을 섞어 엮어나가는 사설은 차츰차츰 흥을 더해가는 가운데 간간 청중의 웃음기까지 부르며 이제는 소천국과 백주도 내외의 어려운 섬살이 처지를 읊어가기 시작했다.<sup>9)</sup>(밑줄: 인용자)

(ii) 그런데 그 아들까지 공연히 아버의 수염을 끄들어댄 허물로 소천국의 노여움을 사 무쇠상자에 담겨 바닷물에 띄워 버려지는 판국에 이르자, 굿판의 분위기는 지금까지보다 사뭇 숙연해졌다. 이전에도 이미 같은 심방으로부터 수없이 되풀이해 들어왔을 그 옛날이야기 같은 사설에 취죽은 듯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윽고 이따금 참을 수 없는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쇠상자가 바닷물에 흘러흘러 종당에 풍운조화의 덕을 입어 어느 바다 건너 먼 해안가에 이르러 한 산호수 가지에 걸리게 되는 대목에 이르러선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더러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생기는가 싶더니 끝내는 여기저기서 숨은 오열의 소리가 흘러나오기까지 했다.<sup>10)</sup> (밑줄: 인용자)

(iii) 굿판의 사설은 다행히 상자 속에서 그간 기골이 장대한 거인으로 자란 소천국의 아들이 그 바다 건너 나라 임금의 구함을 받아 그의 막내 공주와 내외의 연을 맺는 것으로, 이번에는 청자들로부터 안도의 한숨과 탄성을 자아냈다.<sup>11)</sup> (밑줄: 인용자)

8)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2003, 137-138면.

9) 위의 책, 141면.

10) 위의 책, 141-142면.

11) 위의 책, 143면.

(iv) -이땅 저땅 만났고행을 다 겪은 소천국 님 아들이 상제의 명령을 받아 예송리 신당으로 제사상을 받자 하니 이것이 만민의 풍운조화롭다. 두둥둥둥……

무가 사설은 드디어 열시구 절시구, 지금에 바로 그 당신의 좌정을 받기듯 한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추임새 속에 그렇게 마지막 절정을 치달아 갔다.<sup>12)</sup> (밑줄: 인용자)

서사 전개과정에서 신화의 내용을 제시할 때, 서사의 흐름을 중단하고 ‘서사무가 사설’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해 일종의 메타텍스트<sup>13)</sup>적 형태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사설을 분절하여 청중들이 곁판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공감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청중은 본풀이에서 심방이 읊는 신의 내력담의 내용을 따라서 공감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신화는 조복순 무녀가 치르는 ‘서울 곳’의 ‘바리데기’ 무가이다. 바리데기 무가는 앞서 소개한 다른 서사무가의 사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i) 반짝반짝 눈뜬 자식을 어디다가 버릴 거나  
죽은 자식을 버리려도 일천간장 다 녹는데  
반짝반짝 산 자식을 어디 갖다 버릴소나

12) 위의 책, 145면.

13) 메타 텍스트는 언어학에서 메타언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설 속의 텍스트이다. 메타 텍스트는 작품의 중심 서사 단위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차적인 텍스트로 고찰하게 한다. Roland Barthes, 「이야기의 구조분석입문」, 김치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3, 115면. 이청준 소설은 이러한 메타 텍스트를 자주 활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설 속의 소설「매잡이」나 「소문의 벽」 등, 책의 인용문(「다시 태어나는 말」), 노래 가사(「다시 태어나는 말」, 「이어도」), 판소리 사설(「서편제」, 「선학동 나그네」, 「소리의 빛」), 농담 시리크(「빈방」)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줄고,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조와 주체형성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0면.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심야삼경 깊은 밤에  
 송죽 바람 쓸쓸히 불고 산새도 슬피 운다<sup>14)</sup>

(ii) “이 제주도에선 무조신으로 세 쌍둥이 명두신을 모시는 데 비해  
 오늘 곳은 바리공주를 모시는 게 다르지요?”

고종민이 또 아는 체를 하고 나선 것과는 달리 그 이름이나 내력이 다른 무조신도 근원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제주도 심방들이 각기 다른 유래의 당신을 모시면서도 위로는 모두 같은 명두신을 모시듯, 그리고 육지부 무당들이 자기 몸주 신령을 각기 다른 산신령으로 모시면서도 그 윗무조신으로 제석천이나 바리공주를 모시듯, 초공 명두신을 모시는 제주 심방들이나 바리공주 제석천을 모시는 물 무당들이나 다시 한 단계 할아버지뻘 신으로 다같이 천상의 최고 신 옥황천신을 함께 모셨다. 게다가 제주도의 명두신이나 서울의 바리공주는 그 내력도 비슷했다. 본명두 신명두 삼명두 삼 형제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북과 징을 만들어 삼천천 제석궁으로 들어가 열 나흘 동안 그 북과 징을 울려 살려내고 무조신이 된 과정이나, 그가 전부터 육지 곳에 대해 들어 온 바 옛날 어느 딸 많은 왕가의 일곱 번째 공주로 태어나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버려졌다가 뒷날 그 부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자신을 낳아 준 은공만은 갚고자 산 몸으로 저승까지 들어가 그곳 악물지기를 위해 물 삼 년 길어주고 불 때기 삼 년 밥 시중 삼 년에 아들 삼 형제까지 낳아준 끝에 겨우 신약수를 얻어와 아버지를 살려낸 바리데기의 사연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냈기에 무당의 조상이 되고 저승을 다녀왔기에 망자들의 저승 혼백을 다스리게 된 무조신으로서의 내력(그 효성에서부터) 비슷한 데가 많았다. 제주 심방이나 육지부 무당이나 근본은 같은 조상의 다른 자손이라 할 수 있었고, 그래 그 굿거리 과정도 근본이나 목적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 그 밖에 무악기의 종류나 춤가락, 무가의 내용 따위는 혼백의 내세 평안을 비는 소지 올리기 경우에서처럼 그 구성이나 시연 시기가 다를 뿐 물이나 이곳이나 본 뜻은 대개 같았다.<sup>15)</sup> (밑줄: 인용자)

인용문(i)에서는 바리데기 무가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내 제시하였고,

14)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2003, 195면.

15) 위의 책, 218면.

인용문(ii)에서는 고종민과 추만우의 대화와 추만우의 생각을 보여주면서 추만우의 생각에 ‘제주도의 명두신’ 내력과 ‘서울의 바리공주’ 내력을 비교해서 서술한 내용(밑줄 친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제주굿과 육지굿의 차이를 강조하는 고종민의 생각과 두 굿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추만우의 생각이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뱀당신 본풀이, 초감제 본풀이, 그리고 바리데기 무가까지 세 서사무가를 통해 제주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서사무가는 신들의 이야기, 내력담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사무가와 굿판의 제차를 연결시켜 그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전설의 경우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의 대비를 통해 내용상의 변용을, 신화의 경우 세 서사무가를 제시하는 서술방법에 있어서의 변용을 통해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이 작품에서 ‘아기장수 설화’는 이야기, 사건, 따라서 텍스트적인 요소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의 내용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서사무가’의 경우에는 이야기나 사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서사무가가 굿의 제차로 연행되고, 굿판에 참여하는 청중의 반응이나 정서가 굿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텍스트적인 측면보다는 구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결과적으로는 굿이 심방의 사실과 춤, 행동, 노래, 그리고 청중의 반응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치러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3. ‘신화’와 ‘전설’ 콘텐츠의 의미화 전략

#### 1) 선악의 윤리적 양항 대립에 의한 경계 짓기: 전설의 경우

『신화를 삼킨 섬』은 주제의 측면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제주섬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와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갖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 이 섬 역사에서 보면 자신이 어느 쪽 권력권에 서려 했든지 결국은 이 섬 전체가 국가 권력의 한 희생 단위로 처분되곤 했지요. 고형도 아시 겠지만 그래 이 섬 사람들, 이번 역사 씻기기 사업의 희생자 신고 사업에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양지나 음지, 이를테면 한얼회나 청죽회 어느 쪽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제 3의 도민층인 셈이지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선 나름대로 정의요 진실을 살고 있을 그 한얼회나 청죽회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이 섬의 역사적 운명을 함께 살아온 한 생존단위의 공동운명체 백성들인지도 모르지요.<sup>16)</sup>

(ii) 심방은 대개 제 본 정신을 지닌 중간자적 사제로서 생자나 망자 편에서 신령의 뜻을 청해 빌고, 그 신령의 뜻을 망자나 유족에게 대신 전할 뿐이었다. 그러니 그 신령들과 심방과 제주들은 여타의 고등종교처럼 수직적 종속관계로서가 아니라 수평적 시혜관계 속에 함께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식이었다. 그 결과 내세와 현세, 이승과 저승 간에도 시공의 단절이 사라진 동시적 공간 속에 신령들과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울고 춤을 추고 성내며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까지도 하였다.

그것은 정녕 신화의 재현이었고, 그 자체로서 살아 있는 신화였다. 신화라는 말은 원래 그 신화적 사실의 죽음과 사라짐을 전제로 한 것이지

16) 위의 책, 77면.

만, 이 섬에서는 그 신화가 심방들의 곁을 빌어 생생하게 살아 전해지고 있음이었다.<sup>17)</sup>

인용문(i)에서는 제주 섬사람들이 ‘한얼회’와 ‘청죽회’로 대변되는 정권과 반정권이라는 권력 대립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보면서, 정권과 반정권의 대립 구도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제3의 도민층’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의 이념과는 무관한 ‘생존단위의 공동운명체의 백성’임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문(ii)에서는 제주 신화는 ‘심령’과 ‘심방’과 ‘제주’가 ‘수직적 종속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시혜관계’ 속에서 ‘함께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내세와 현세, 이승과 저승’이 하나가 되고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울고 춤을 추고 성내며 다투기까지’ 하는 세계, 그것이 제주 신화의 세계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때 아기장수 설화와 세 가지 서사 무가의 신화가 이 작품의 서사 구조에서 갖는 기능과 의미망에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아기장수 설화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작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 설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1~18’까지의 번호를 단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서사 내에 삽입된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에 희생된 제주 섬사람들의 운명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1~18’까지의 서사에 나타나는 인물 유형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중심 서사에 내포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위의 책, 67면.

- 가) 고려 때 삼별초와 관련된 김통정과 김방경의 대립
- 나) 해방 직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대립
- 다) 1980년 현재 제주를 지배하는 신군부와 그에 맞서는 지팡이 사내 대립
- 라) 역사짓김굿과 관련해 정권과 반정권으로 나뉜 한얼회와 청죽회의 대립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의 인물 유형은 유사성에 의한 대체<sup>18)</sup>에 의해 중심 서사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대립 구조 속의 인물들에 연결되고 있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아기가 관군에 의해 처형당하는 것과 관련해, 아기장수라는 인물은 가)에서 김통정으로, 나)에서 무장대로, 다)에서 지팡이 사내로, 라)에서 청죽회로 대체된다. 관군은 가)에서 김방경으로, 나)에서 토벌대로, 다)에서 신군부로, 라)에서 한얼회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아기장수 설화’는 아기장수와 관군의 대립쌍, 그것도 선한 아기장수, 악한 관군의 의미적 대립쌍을 형성하면서, 중심 서사의 대립 구조에서 선과 악의 윤리적 양향<sup>19)</sup>을 대립시킴으로써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프롤로그에 제시된 아기장수 설화의 전반부는 ‘금기와 금기 위반’으로, 에필로그에 제시된 후반부는 ‘아기장수의 죽음과 아기장수의 부활에 대한 기다림’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이 작

18) 라캉은 무의식의 언어활동으로 은유와 환유를 들고, 은유란 문자 그대로 기표의 대체라고 파악한다. 기표의 대체라는 점은 기표가 기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의는 기표의 그물로부터 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은유에서는 S1이라는 기표가 S2라는 기표로 대체될 때, S2의 기의 s2는 추방되고, 그 자리를 기호 S1(기표)/s1(기의)이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의 기표를 다른 기표로 대체함으로써 의미화 작용의 효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적 과정을 통해 의미가 생산된다. Anika Lemaire, 이미선 역, 『자크라캉』, 인간사랑, 1994, 275-295면.

19)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4, 문학과지성사, 1998, 143-163면.



품은 중심 서사의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전복시킨다.

김통정은 이렇다면 오랜 세월 섬사람들이 피눈물 속에 숨겨 죽여 묻으면서 뒷날에 다시 오기를 꿈꾸고 기다려온 저 아기장수, 그 가짜 구세주의 본색에 다름 아니었고, 섬사람들은 이번에도 가짜 구세주에 속아 무고한 피땀만 흘리고 만 격이었다. 그런 사정이고 보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은 이제 한낱 난폭한 역장에 불과한 김통정에 대항하여 김방경 장군을 내세워 새 영웅 전설을 만들고 뒷날에는 당신으로까지 모셔 섬겼을 법한 이치였다.

하지만 그 또한 김통정을 부인하고 김방경을 받드는 선택적 갈등이 아니라, 김방경 역시도 함께 부인당해야 할 양비론적 대립의 길이었다. 왜냐하면 김방경 역시도 섬사람들과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외래 장수로서 그 섬과 섬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배 권력자였기 때문이다.<sup>20)</sup>

위 인용문에서 고려 때 삼별초와 관련해 반정부 집단을 대표하는 김통정과 정부 집단을 대표하는 김방경에 대한 제주 섬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김통정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제주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면서 도탄에 빠지게 했고, 김방경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김통정 집단을 내몰고 섬사람들을 구한다. 따라서 제주 섬사람들은 김방경 집단을 영웅으로 모셔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주 섬사람들은 김방경 집단 역시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또다른 권력 집단으로 받아들이는다. 그러면서 김통정, 김방경 모두 아기장수 설화에 나오는 ‘가짜 구세주’일 뿐이라 믿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섬사람들은 권력의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제3의 도민층으로 살면서 자신들을 ‘생존단위의 공동운명체의 백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제주 섬사람들은 4.3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에서, 또한 현재 신군부와 지팡이 사내의 대립 구도에서, 그리

20)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 열림원, 2003, 197면.

고 한얼회와 청죽회의 대립 구도에서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섬사람들만의 공동운명체를 꾸려나가려 한다.

## 2) 공동운명체의 일체감에 의한 경계 허물기: 신화의 경우

이러한 섬사람들의 지향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심 서사에 제시된 세 가지 서사무가와 관련된 신화와 그 신화를 구현하는 심방들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 신화는 전설에서 만들어진 선악의 윤리적 양항의 대립을 무화시킨다. 선과 악의 경계를 강화하고 악에 의해 선이 패배하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계를 허물고, 선악의 양항 대립에 주목하는 시선을 의심한다. 말하자면 신화는 정서의 공감, 공동운명체로서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며, 죽음과 삶, 생자와 망자,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섬사람들의 저주스런 운명이 결국은 섬에 좌정한 당신(堂神)의 운명과 다르지 않음을 통해 신과 인간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사무가와 그 무가를 구현하는 심방의 곳에 의해 대립적 구도가 무화되거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 희생자들의 목록이 편 가르기에 의해 나뉘어 있다. 육지에서 건너온 심방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제주 섬의 심방들은 죽은 사람들의 혼백은 편을 갈라놓고, 그마저도 씻겨주지 않고 외면한다. “죽은 사람 낚풀이는 가리면서 제 신주풀이엔 정성을 쏟는다”는 요선의 말은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주에는 청죽회, 한얼회 두 단체가 정치적 성향의 면에서 대립한다. 각 단체는 자신들의 단체의 성향에 맞는 희생자들을 골라 목록화한다. 토벌대와 무장대가 제주 4.3사건에서 대립했듯, 청죽회와 한얼회 역시 그 정치적 성향을 이어받으면서 희생자들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희생자들은 편이 나뉘어 대립하면서 그 싸움의 결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 할 것 없이 끌려 다니다가 무고하게 죽게 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주 섬의 심방들은 4.3사건의 희생자 목록에 올라와 있으면서 청죽회나 한얼회로 편이 갈린 혼백을 씻기지 않는다. 혼백마저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제주 섬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이라면, 제주 섬 심방들은 그런 갈등마저 아예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다. 네 편, 내 편 편 가르기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심방들은 편 가르기가 분명한 희생자들의 목록에 실린 혼백은 씻기지 않고, 오히려 혼백의 편이 밝혀지지 않은 무고한 희생자들, 주인 없는 혼백을 씻기려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추심방이다.

둘째, 4.3사건에서 토벌대와 무장대가 대립한다. 토벌대 2인의 죽음은 4.3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 편이 확실했던 토벌대 훈령은 네 편, 내 편 가르기로 인해 씻겨주지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던 토벌대의 고혼을 육지에서 온 조복순 무녀가 나서 진혼굿을 치러주기로 한다. 추만우는 조복순의 진혼굿에서 “지금까지 인두겁을 뒤집어 쓴 금수 떼들로만 전해 들어온 그 토벌대들의 희생자들 가운데에도 그렇듯 생전의 삶이 무고하고 착했던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4.3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결코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4.3사건의 토벌대와 무장대는 이후 청죽회와 한얼회의 관계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시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 비극적인 사건은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지팡이 사내’의 횡불 남행 행렬과 신군부의 계엄령이 ‘아기장수/관군’의 의미의 대립쌍을 이루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이었던 삼별초의 난에서 김통정과 김방경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그런

데 제주섬의 전설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변형된다. 김통정이 도탄에 빠진 제주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등장하는 전설이 있는 반면에, 관군인 김방경이 제주로 건너와 가짜 구세주로 전락한 김통정을 도술로 잡아 죽이는 전설도 만들어져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외래의 지배자로서 제주섬의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김통정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구세주가 가짜 구세주로 전락하는 상황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영원한 선도 영원한 악도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선악의 양항 대립을 통한 이분법적 경계 짓기는 '서사무가'의 신화를 통해 '경계 허물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에 의해 무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계 허물기란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 곧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르지 않음'은 굿판의 여러 제차를 통해, 여러 층위에서 강조되고 있다.

먼저, '해정리 뱀당신'의 신화에서는 '거지 귀신 신세'에 처한 당신이 실상 심방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원령으로 전락한 뱀당신의 모습은 '섬사람들 자신의 저주스런 운명의 형상'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원한과 서러움의 공감적 표상으로 당신과 일체감을 느끼게끔 한다는 점에서 '신=심방=사람들'의 불우한 처지를 드러내기에 알맞다.

다음으로, '초감제 본풀이'의 신화에서는 버림받고 쫓기는 당신의 불운한 처지와 그런 신의 처지에 삶의 동질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시된다. 고종민이 대표적인데, 고종민의 아버지는 바다 건너 일본에 갔다가 제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고종민의 아버지 고한봉과 고종민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불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자면 '당신의 처지=섬사람들의 숙명=바다 건너 사람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정리 뱀당신’ 신화가 보여주는 세계이다.

-옛날에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귀하게 태어난 상제님의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위인이 자꾸 천상의 영화를 마다하고 어머니의 땅으로 내려갈 생각만 하고 지냈다. 아버지 상제님이 이를 괘씸히 여겨 결국 그 벌로 그에게 여자의 모습을 주어 이 막다른 제주 섬으로 쫓아내려 보냈다. 그런데 그 암신령이 어느 동네를 지나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둑을 두고 있던 그 동네 당신의 눈에 띈 게 더욱 큰 화근이었다. 느닷없는 여색에 음심이 동한 그 당신은 이 해정리까지 따라오며 계속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희롱을 건넸고, 그를 분하게 여긴 암신령은 제 팔목을 칼날로 깎아버렸다. 한데다 더욱 운이 없으려니 그 짓곳은 당신은 천계와는 정반대 쪽 용궁에서 온 신령이었고, 그 바람에 분이 난 위인의 고자질에 용왕이 그를 다시 흉측스런 뱀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sup>21)</sup>

천상의 신과 바다의 신과 뱀과 인간이 수직적 위계질서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제주 무속에 나타난 신화의 세계이다. 신에 의한 인간의 지배, 혹은 권력자에 의한 민중의 억압과 지배가 아니라, 신과 인간과 자연물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가 제주 신화의 세계인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그 변개에 해당하는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지배집단이든 반체제집단이든 모두 권력을 쟁취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집단에 의해 희생된 제주 섬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권력 집단의 대립이 아기장수 설화의 시대에서부터 고려 삼별초, 제주 4.3사건, 그리고 1980년대 현재의 신군부 지배 시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

21) 위의 책, 123면.

은 제주 서사무가에 바탕을 둔 제주 신화를 통해, 권력 집단의 대립과 그 대립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신과 인간과 자연, 이승과 저승, 내세와 현세가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신화와 전설이라는 콘텐츠의 이러한 소설적 변용을 통해, 이 작품은 현실의 경험세계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과 그 집단에 희생된 민중들의 아픈 삶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주 섬사람들의 집단무의식에 내재한 한민족의 ‘넋’을 제주 신화와 전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이 신화와 전설을 소설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4. 맺음말

이 글은 『신화를 삼킨 섬』에는 신화와 전설을 비롯한 각종 설화가 작품 서사 전개과정에서, 또 주제형성 과정에서 중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 작품에서 신화와 전설이 어떻게 소설적으로 변용되고 의미화 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 설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1~18’까지의 번호를 단 서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서사 속에 제주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 서사무가가 제시되고 있다. 전설에 해당하는 아기장수 설화는 한국에서 전승되는 보편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에서만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가 대비되고 있다. 신화에 해당하는 제주도 서사무가는 서사 내에서 세 번에 걸쳐 벌어지는 굿판에서 굿 제차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뱀당신 본풀이, 초감제 본풀

이, 그리고 바리데기 무가까지 세 서사무가를 통해 제주 신화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아기장수 설화’는 이야기, 사건, 따라서 텍스트적인 요소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물이나, 사건의 내용처럼 이야기와 사건과 관련된 텍스트적 요소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서사무가’의 경우에는 이야기나 사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서사무가가 굿의 제차로 연행되고, 굿판에 참여하는 청중의 반응이나 정서가 굿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텍스트적인 측면보다는 구술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인물 유형은 유사성에 의한 대체에 의해 중심 서사에서 일어나는 대립 구조 속의 인물들에 연결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윤리적 양향을 대립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전복된다. 곧 제주 섬사람들은 김통정, 김방경 모두 아기장수 설화에 나오는 ‘가짜 구세주’일 뿐이라 믿으면서, 권력의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제3의 도민층으로 살면서 자신들을 ‘생존단위의 공동운명체의 백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 제주 섬사람들은 4.3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에서, 또한 현재 신군부와 지팡이 사내의 대립 구도에서, 그리고 한일 회와 청축회의 대립 구도에서 그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섬사람들만의 공동운명체를 꾸려나가려 한다.

이러한 섬사람들의 지향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심 서사에 제시된 세 가지 서사무가와 관련된 신화와 그 신화를 구현하는 심방들이다. 이 작품에서 제주 서사무가에 바탕을 둔 제주 신화는 권력 집단의 대립과 그 대립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과 인간과 자연, 이승과 저승, 내세와 현세가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제주 신화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신화와 전설이라는 콘텐츠의 이러한 소설적 변용을 통해, 이 작품은 현

실의 경험세계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과 그 집단에 희생된 민중들의  
아픈 삶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론으로 제주 섬사람들의 집단무의식에 내재한 한민족의 ‘넋’을 제주 신화  
와 전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2018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필한  
후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진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25일 편집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되었음.

KCI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1·2, 열림원, 2003.

###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김윤식, 「제주도로 간 「당신들의 천국-이청준론」」, 『20세기 한국작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현선, 『한국무조신화연구』, 민속원, 2015.
- 송효섭, 「본풀이」의 기호학, 『기호학연구』 4, 문학과지성사, 1998, 143-163면.
-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11, 263-298면.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주미,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신화의 소설적 전유 방식」, 『한민족문화연구』 59, 한민족문화학회, 2017.9, 45-70면.
- 정과리, 「해설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탐돌이도 넘어」,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 정홍섭,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황석영의『손님』과 이청준의『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71, 실천문학사, 2003. 8.
- 주지영,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틀서사와 환유」, 『비평문학』 43, 2012. 3, 383-417면.
- 차혜영, 「냉소적 이성과 권력의 거리, 이청준 후기 소설연구」, 『한국언어문화』 39, 2009.8, 293-320면.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3. 국외논문 및 단행본

- Barthes, Roland, 「이야기의 구조분석입문」, 김치수 편,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3.
- Genette, Gerard,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Lemaire, Anika, 이미선 역, 『자크라캉』, 인간사랑, 1994.

## 국문초록

이 글은 『신화를 삼킨 섬』에는 신화와 전설을 비롯한 각종 설화가 작품 서사 전개과정에서, 또 주제형성 과정에서 중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 작품에서 신화와 전설이 어떻게 소설적으로 변용되고 의미화 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아기장수 설화’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1~18’까지의 번호를 단 서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서사 속에 제주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 서사무가가 제시되고 있다. 전설에 해당하는 아기장수 설화는 한국에서 기록, 전승되는 보편적인 아기장수 설화와 제주도에서만 알려진 아기장수 설화가 대비되고 있다. 한편 신화에 해당하는 제주도 서사무가는 서사 내에서 세 번에 걸쳐 벌어지는 굿판에서 굿 제차의 형태로 구술성이 강조되어 제시되는데, 뱀당신 본풀이, 초감제 본풀이, 그리고 바리데기 무가까지 세 서사무가를 통해 제주 신화가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인 아기장수 설화의 인물 유형은 유사성에 의한 대체에 의해 중심 서사에서 일어나는 대립 구조 속의 인물들에 연결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윤리적 양향을 대립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제주도 아기장수 설화를 통해 전복된다. 곧 제주 섬사람들은 김통정, 김방경 모두 아기장수 설화에 나오는 ‘가짜 구세주’일 뿐이라 믿으면서, 권력의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제3의 도민층으로 살면서 자신들을 ‘생존단위의 공동운명체의 백성’으로 여긴다.

이러한 섬사람들의 지향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심 서사에 제시된 세 가지 서사무가와 관련된 신화와 그 신화를 구현하는 심방들이다. 이 작품에서 제주 서사무가에 바탕을 둔 제주 신화는 권력 집단의 대립과 그 대립에 의한 무고한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과 인간과 자연, 이승과 저승, 내세와 현세가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제주 신화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신화와 전설이라는 콘텐츠의 이러한 소설적 변용을 통해, 이 작품은 현실의 경쟁세계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과 그 집단에 희생된 민중들의 아픈 삶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주 섬사람들의 집단무의식에 내재한 한민족의 ‘뉘’을 제주 신화와 전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어 :** 신화를 삼킨 섬, 신화, 전설, 콘텐츠, 변용, 의미화, 구술성, 기술성, 아기장수 설화, 서사무가, 집단무의식, 뉘, 권력 집단

■ Abstract ■

The transformation and signification on the contents of myth  
and legend in novel

- *The Island Swallowing a Myth* in Lee Cheong-jun's novel

Joo, Ji-young(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contains analysis of transformation and signification on the contents of myth and legend in novel *The Island Swallowing a Myth*. This novel was composed with combinations of narrative story that involves the myths of shamanism and legend.

This novel composed with prolog, narrative 1~18, epilogue. The prolog and epilogue informed of the legend of ‘Agijangsu’ an oral tradition narrative story that meaning of baby general known only in Jeju Island. The narrative 1~18 informed of the myths in Jeju Island. The myths have showed shamanistic-songs three times shaman's rites ‘Gut’ that is ‘Bandangshin Bonpoori’, ‘Chogam-je Bonpoori’, ‘Baridegi’.

The character types generally known of the folktale of ‘Agijangsu’ replaced with characters of the main narrative by similarity. As a result, the types of characters are opposed to those of rulers and subjects,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ethical terms of good and evil. But this aspect is overturned by the story of Jeju's ‘Agijangsu’ that composed with ‘savior’, ‘bogus savior’, the third people who believed in the common destiny of the survival unit.

In This novel, the Jeju Myth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preventing innocent sacrifices caused by power groups conflicts. It is the world of Jeju mythology where God, man, nature, earth, world and earth are united and live together.

Through this fictional transformation of the contents of mythology and legend, this novel

would solve the problems of the Jeju islanders, taking issue with the painful lives of those who are sacrificed for the group of seeking power in the real world. One way to solve such problems is to shape the soul of the Korean people inherent in that Jeju Island's collective unconscious through Jeju myths and legends.

■ **keywords** : *The Island Swallowing a Myth*, myth, legend, contents, transformation, signification, orally speaking, literally writing, folktale of 'Agijangsu', Narrative shamanist Myths, collective unconscious, soul, power group

